

만인의 별

검은 연기 피어오르던 저녁
피와 바람으로 붉어진 성벽

외로운 북소리
칼날보다 뜨거운 숨결이
흙 속에 스며들고
불속에 사라질 때
꺾가에 맴도는 그들의 목소리

“우리는 물러서지 않으리 ”

이름마저 두고 떠난 이들
창끝에 매달려
조국의 무게를 온몸으로 껴안고 쓰러졌다

뜨거운 피와 눈물이
하늘에 사무치던 날
칼이 닿지 못한 곳에서
서로의 등을 지켜주던 밤
무너진 성벽 위로 고요히
별들이 피었고

나는 그 아래
고개를 숙인다

언젠가, 나도 저 별이 되어 빛나기를